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한 전진대회

WCC반대운동연대, 그릇된 복음전파하는 이들의 회개 촉구

교회개혁 500주년을 기념하고 WCC 반대운동 4주년을 맞이하여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한 전진대회'가 지난 10월 14일(토) 오후 1시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열려 그릇된 복음을 한국교회에 전파하여 한국교회를 혼란에 빠트리는 이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바른 복음전파를 위한 한국교회의 개혁을 당부했다.

이날 1부는 김용삼 찬양밴드의 찬양, 살롬선교회 대표 변병탁 목사의 인도로 합심기도회를 갖고 2부 예배는 WCC반대운동연대 조직위원장 송춘길 목사의 인도와 대회 취지 설명, 세계무대부흥사회 회장 신정희 목사의 대표기도, 이병찬 목사의 특송, 예정활동증경총회장 안병환 목사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안병환 목사는 '아! 여수론'(신 32:15)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몇몇 교단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교단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과 눈물이 지킨다"고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을 본



명히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WCC, 동성애, 종교다원주의에 대항해 기도하고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CC반대운동연대 조직위원장 송춘길 목사는 "2013년 WCC 부산총회 개최 이후 한국교회는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인본주의 물결에 완전히 휩쓸려 버렸다"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십자가의 도를 지키고 한국에 있는 주의 몸 된 기독교회를 지키기 위해 집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에서 성도들은 한국교회 내에 여러 모양으로 스며들어 있는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인본주의에 대해 애절한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힘입어 한국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회복되고 복음전도와 세계선교의 사명에 초점을 맞춰 전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또 집회에 참여한 예정총합, 예정활동 소속 일부

목회자는 "교단 내 모든 목회자가 NCCK, WCC의 정체성을 지지하고 찬성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다"며 "우리 자신부터 부를 끊고 회개하고 용서받으며, 한국교회를 개도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3부 결의대회는 광주전남 17개 노회협의회 증경회장 이원재 목사의 대회사, 자유감리회 감독 이의근 목사의 규탄사, 300명 기도온 용사기도회 대표 조엘 목사, 호산나전원교회 이봉철 목사의 '한국교회 회개'와 '한국교회 개혁'을 위한 기도, 누비전선교전대 대표 강주성 목사의 결의문 낭독,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대표회장 지광철 목사의 축도로 진행됐다.

이원재 목사는 "WCC는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동성애와 동성혼 등을 만들어냈다"며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개헌을 통해 기본권 체계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려 하고, 성평등의 이름으로 동성혼, 근친상간, 수간 등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하나님의 법집사가 바로 세워지도록 한국교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WCC반대운동연대는 "WCC는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종교다원주의로 기증스럽고 무서운 것"이라며 "WCC 회원이 되어 정통기독교교회를 가톨릭에 일치시켜 없애버리는 통합교단이나 NCCK의 배교와 반역, 역적 행위와 이 행위를 알면서 책망하지 않고 그대로 존중하고 연합단체를 창립한 합동교단, 백석교단,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더 기증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 모든 행위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우리들의 침묵"이라며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힘을 모을 것을 당부했다.

말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사명 감당 다짐

66-3차 실행위 준비 및 각종 회무 처리

제66-6차 임원회

교단 제66-6차 임원회가 지난 10월 19일(목) 오전 11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향동 681-5 온선교회(담임 탁정신 목사)에서 열려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교단 총무 엄기철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총회장 임용재 목사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교단 회계 윤병하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윤 목사는 고전 4:1-5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말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귀한 사역자들이 다짐 것"을 강조했다.

이어 교단과 임원회를 위해, 온선교회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한 뒤 교단 윤병하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곧바로 회의에 들어갔다.

교단 총회장 김영인 목사 주재로 열린 회의는 서기 차홍식 목사의 회원점명 후 김영인 목사의 개회 선언이 있었으며 총무보고로 2017 전국시도연합회 연합대회를 비롯해 각종 행사시행을 보고했으며 재무 탁정신 목사의 수입보고, 교단발전기금 납입현황 보고, 회계 윤병하 목사의 지출보고 순으로 이어졌다.

결의 및 안건투의 사항으로는 교역자실태보고, 교회세 청원 등의 사안을 결의했으며 기타사항으로 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32차 정기총회, 66-3차 실행위 점검 등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동부전선 향로봉대대 방문, 장병들 위로

군선교위원회

교단 군선교위원회(위원장 박순용 목사)는 지난 10월 17일(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철혈방어 근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동부전선 향로봉대대를 방문, 장병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했다.

이날 위문에는 교단 증경총회장 이창재 목사를 비롯해 군선교위원장 박순용 목사, 정석현 목사, 임방채 목사, 성백달 목사, 김남수 목사, 박귀희 목사 등이 향로봉교회에서 장병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박순용 목사의 사회로 정석현 목사의 기도, 증경총회장 이창재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 목사는 장 39:13-23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이 나라 미래의 주인공인 젊은 군인들이야말로 너무나 소중한 자산이며 어떠한 난관과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정직한 행보를 하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는다고 전하고 전역 후 가까운 교회에 나가 성경말씀으로 삶의 방향을 바로 세우고 승리하는 장병들이 다 될 것을 당부했다.

예배 후에는 준비해 간 위문품을 장병들에게 전해주며 따뜻한 사랑나눔의 시간을 갖고 돌아왔다.

프루도초장은
바람은
바람은

초장은
바람은
바람은

‘넘치는 은혜와 모든 착한 일’

조용목 목사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후 9:8)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계를 관찰하면 그 광대함과 질서와 조화 그리고 종류의 다양함과 풍부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입니다. 이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은혜 역시 지극히 풍성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 풍성한 은혜가 무엇이며 어떻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며 그 은혜의 귀중함이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보아지고 깨닫게 해주셔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열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입니다. 둘째, 영생을 얻게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넷째, 신령한 지식을 얻게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다섯째, 신령한 은사를 받게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여섯째, 신령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일곱째,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덟째,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홉째, 부활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열 번째, 상급과 면류관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다양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누가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멀리 떠난 죄인임을 시인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감당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든 착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약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를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한 모든 선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 행한 일로 간주됩니다. (마 25:34~40) 또한 신령한 지식과 은사를 나누어 주는 것이 착한 일입니다. 그리고 착한 일이란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멸망 길로 가는 사람에게 생명의 길로 돌아오도록 지구에서 천국으로 나아가도록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보다 더 착한 일은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며 수고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나쁜 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무지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넘치도록 받는 사람은 진실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써 착한 일을 넘치게 행하는 생활은 진실로 복된 생활입니다.

(은혜와진리교회)

진등용 목사, 미국 뉴욕서 성회 인도

예하성 증경총회장 진등용 목사(새소망교회)는 미국 뉴저지시분목교회 청림 29주년 부흥성회 및 뉴욕신대에서 열리는 세미나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 지난 10월 9일(월) 출국하여 뉴저지에서 5일 간의 부흥성회를 인도하고 뉴욕신대에서는 2일 간의 세미나를 인도하고 19일(목) 귀국했다.

한교연 간담회, 한기연 정관 확정 요청

7가지 결의 내용 16일 교단장회의 대표 3인에게 공문 발송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은 지난 10월 13일(금) 한교연 회의실에서 정경 대표회장 및 회원교단 교단장 총무 법인이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교연은 간담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10월 16일(일) 교단장회의 대표 3인(이성희 김선규 전병국 목사)에게 정식 공문으로 발송하고, 한기연 창립총회에서 임시로 받은 정관을 조속히 확정함으로써 법적 구속력이 있는 총회가 일관히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교연이 간담회에서 한 결의는 “본회는 교단장회의와 통합해 한국기독교연합(한기연) 창립총회(2017.08.16)를 개최했으나 총회석상에서 양측이 합의하지 아니한 정관문제로 인해 정관을 임시로 받고 폐회했다”며 “따라서 총회에 앞서 양측 통합추진위원회가 조속히 모여 정관을 확정할 것을 요구하며, 11월 17일까지 본회와 교단장회의가 정관을 합의하지 못할 시 통합은 파기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했다.

이어 “한기연 총회를 위한 정관을 합의



처리하기 위해 교단장회의 3인, 본회 3인으로 구성된 통합추진위원회가 모여 정관을 합의 확정하고, 이들 6인 위원들이 정관을 토대로 총회를 준비토록 한다”고 결의했다.

또한 “한기연의 모든 공문은 공동대표회장 4인의 서면결재를 득해 공문을 발송하되 본회 회원교단에 보내는 공문의 발송 등은 한 한교연 사무처가 담당해야 한다”며 “한기연은 본회의 법인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한기연이 본회 회원교단에 교세보고 등을

개별적으로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서는 안되며, 한교연에 가입하지 아니한 교단들 중에 교단장회의를 통해 가입하는 교단들에게만 보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와 함께 “본회는 12월 5일 예정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정관에 의해 총회를 개최하고 폐회할 때까지 존속한다”며 “한기연에서 요청한 교단장 추하예배 공동개회에는 응하지 않기로 하고, 또한 한기연의 10월 20일 행사에도 공식 참여하지 아니한다”고 결의했다.

ROTC목사회 회장 전용만 목사 취임예배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충성!’ 다짐

대한민국ROTC기독교장교연합회 제131차 조찬예배 및 제5대 ROTC목사회 회장으로 선출된 전용만 목사의 취임감사예배가 지난 9월 16일(토) 영락교회 선교관에서 드려졌다.

2006년 창립한 ROTC 기독교장교연합회는 장교와 후보생들을 기독교 신앙인이 되도록 전도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리스도의 사

람을 전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짐하는 ROTC강령에 따라 정례예배 및 학교 기관 교회별 신우회 결성, 후보생 복음화 및 세례, 전후방 부대 대대급 교회 방문, 국내의 선교사 파송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1부 예배는 김재호 목사의 인도로 채의송 목사(현 대한민국 조찬기도회 회장)의 담무 4:5-8 말씀을 본론으로 한 ‘의의 면

류관’이라는 제목의 설교, 박현아 사모·민효희 집사의 특송, 박영문 목사가 한반도의 평화와 나라의 정치, 경제안정을 비롯해 R기연의 부흥발전과 군선교 복음화를 위해 뜨거운 합심기도, 이병호 지도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2부 전교는 박영선 R기연 회장의 진행으로 애국가 제창을 시작으로 주요활동 동영상 이후 인사말과 내빈소개가 있었다. 박 회장은 전용만 목사, 배영복 장로, 채학철 장로에게 축하패를 수여하고 분무성 총동기회장 및 R목회 동기이름으로 전용만 목사에게 축하패를 연이어 전달했다.

전용만 목사는 “ROTC 기독교장교연합회의 무궁한 발전을 간구하며 R목사회장으로 부족한 사람을 세우셨으니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합을 것을 다짐하며 모든 ROTC 기독교장교연합회 회원들이 조금 더 분발하길 바란다”라고 인사했다.



성경 6천부, 스와질란드에 보낸다

대한성서공회, 정선주 집사 후원으로

대한성서공회는 지난 10월 21일(토) 경기도 용인시 소재 반포센터에서 정선주 집사(부산 호산나교회)의 후원으로 스와질란드에 스와티어 성경 6,000부를 기증하는 예식을 가졌다.

대한성서공회 후원회원인 정선주 집사는 2013년부터 해외 성경보내기운동에 참여하였고, 2015년 스와질란드에 스와티어성경 20,200부를 보낸 바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정선주 집사의 가족들(언니 정선자 목사, 자녀 박지혜 양)이 스와질란드의 사역현장을 직접 방문하였다. 현지의 극빈 가정을 방문하여 수많은 어린이들이 돌봄을 받지 못한 채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성서보급 사역의 필요성을 확고히 하고 돌아왔다. 이후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성경 보급을 못 하고 있는 스와질란드성서공회를 위해 대한성서공회에 헌금을 보내 성경을 기증하게 되었다.

정선주 집사는 인사말을 통해 “스와질란드에 두 번째 성경을 보낼 수 있게 해주신 하



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하나님께서 그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성경을 받는 나라가 아닌 주는 나라로 부강 사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잘것 없지만 사랑감을 주셔서 성경을 보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하나님께서 그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성경을 받는 나라가 아닌 주는 나라로 부강 사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잘것 없지만 사랑감을 주셔서 성경을 보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베텔성서 자녀교육편 지도자강습회

오는 10월 18일 충남 아산 생명샘동천교회에서

한국베텔성서연구원(원장 이홍렬 목사)은 지난 10월 18일(수)부터 20일(금)까지 충남 아산시 소재 생명샘 동천교회(위원장 박기환)에서 베텔성서지도자강습회를 개최했다.

이번 강습회에는 박상진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기독교학교육연구소장)와 박미영 교수(기독교대학교육원장)가 강사로 나섰다. 1974년부터 시작된 한국베텔성서연구원

(원장 이홍렬 목사)은 초교파적으로 널리 사랑받는 세계적인 성경교육 과정인 ‘베텔성서연구’를 한국화시킨 프로그램(성서편, 생활편, 신앙편, 구원편, 예배편, 자녀교육편)을 한국 교회에 꾸준히 공급하고 있다.

한국베텔성서연구원이 추구하는 목표는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을 위한 성서적 토대를 제공하는 것으로 거의 반세기에 걸쳐서 300여 회의 지도자 강습회를 개최한 이 유이다.

지금까지 45개 교단 1만 6천여 명의 목회자가 지도자 과정을 수료하고, 4만여 명의 성도님들이 베텔성서 프로그램을 공부했다.



교회연합, 개혁과 변화에 헌신 다짐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교단장·총무 취임감사예배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는 총회장 총무 취임감사예배를 드리고,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 개혁과 변화를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대표회장 신진목 목사, 상임회장 김진호 목사, 상임총무 김탁기 목사)는 교단장 및 총무 취임감사예배를 지난 10월 11일(수) 코리어나호텔에서 드리고, 교회연합과 일치, 변화와 개혁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동행교회 대표회장 신진목 목사는 “오늘 한국교회는 화려하고 거대하지만, 질적으로 볼 때 많은 문제점과 부끄러운 상처부서 있다.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고, 썩어가는 등대가 되었다”라며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제2의 종교개혁이 시급하다. 한국교회 안에서 제2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유럽 교회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새로 취임한 교단장들은 한국교회의 새로운 변화와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

했다.

이날 예배는 신진목 목사의 사회로 최병두 목사의 기도, 김진호 목사의 지도자와 지배자’라는 제목의 설교, 최원권 목사, 이규희 목사의 ‘신임교단장과 총무’, 위기에 처한 국가의 안정’, ‘한국교회의 개혁과 성장’을 위한 특별기도, 김탁기 목사의 광고, 김재권 목사의 축도 순으로 드렸다.

김진호 목사는 설교를 통해 “리더는 링컨을 비롯한 안창호 선생과 같은 지도자형과 히틀러를 비롯한 김정은과 같은 지배자형이

있다. 예수님은 섬김과 희생, 그리고 헌신을 통해 지도자형 리더의 모델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오늘날 지도자들이 한없이 높아지면서 지배자로 변질되고 있다”면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교인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예수님의 지도자 리더십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한다. 예수님의 헌신과 섬김의 리더십을, 총회장과 총무들이 속한 단체와 교단에서 유감없이 발휘하여 한국교회에서 개혁과 변화의 바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17회 한국교회 군선교신학 심포지엄 개최

군인의 영의 동성에 처벌, 법령 강화 등 올바른 합리적 개정안 발표

제17회 군선교신학 심포지엄이 지난 10월 12일(목) 종로구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 기념과 소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는 ‘군대 내의 동성에 심각한성에 대한 논의’, ‘군형법 제92조의6 항문성교 및 기타 추행죄의 합리적 개정 제안’이었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군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동성 간 성행위의 실태를 확인하고 항문성교를 법령을 금지하고 있는

군형법 제92조의6의 합리적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군선교신학회장 이종윤 목사의 기조 강연으로 문을 여는 심포지엄은 군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동성 간 성행위의 실태를 사례발표와 군대 내의 동성에 심각한성에 대해 김원형 교수(부산대학교)가 발제, 전요섭 교수(성결대학교)가 논찬했다. 이어 김지연 박사(동성애 대책위원회 전문위원)가 남성동

성애자간 성관계의 보건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사례 발표했고 이상현 교수(숭실대)가 군형법 제92조의6 항문성교 및 기타 추행죄에 대한 합리적 개정안을 내놓고 김일생 특별정책전문위원(원 병무청장)이 논찬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개회예배-시상식-발제와 논찬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국군종목사단장 이정우 군종목사의 인도로 드려지는 개회예배에서는 군선교신학회 실행위원장 최희범 목사가 설교했다.

매년 심포지엄에서는 군선교신학 논문공모 시상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올해는 이석근 군종목사(교육사령부 리더십센터)가 ‘군인교회 활성화를 위한 본론이 이끄는 목회상담적 설교 제안’으로 황인태 목사(용인 동광교회)가 ‘영성일기를 통한 세례신자 훈련’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장려상을 받았다.



CTS-요즈마 그룹, MOU 체결

‘CTS-요즈마 캠퍼스’ 설립 및 운용 위해

CTS기독교TV와, CTS 인터내셔널이 글로벌 벤처 지원 기업인 이스라엘 ‘요즈마 그룹’과 함께 ‘CTS-요즈마 캠퍼스’를 설립, 운용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지난 10월 16일(월) 체결했다.

CTS와 CTS 인터내셔널은 이에 따라 오는 11월 21일부터 하브루타 교육의 세계적 권위자인 헤츠키 아리엘리 총장이 직접 강의하는 ‘CTS-하브루타 교육 포럼’을 격월로 개최하고, 이를 시작으로 ‘기독교 기반 기업가 양성 프로그램’을 본격 운용할 계획이다. 향후 실시할 주요 프로그램은 ‘하브루타 교육(교회학교 교사 과정, 전분 강사 과정, 교육자 최고위, 경영자 최고위 등)’, ‘기업가 정신’, ‘요즈마 스코치&멘토링’, ‘투자 설명회’, ‘유아와 초중고 요즈마 챌린지 및 선교

사,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특별교육 프로그램’ 등이다.

특 biệt히 내년에는 요즈마 그룹 한국법인과 함께 ‘Start-up 기업 선발대회’를 개최하며 국내 최초 ‘기독교 기반 벤처 기업가’ 양성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CTS에서 자체 운영 중인 기독교대한학교 ‘크리스천글로벌스쿨(C.G.S)’에 하브루타 교육 방식을 적용한 新개념 대안학교 모델을 정착시켜 한국교회에 양질의 기독교 교육 프로그램을 확산시키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화곡그리스도의교회 창립50주년 예배

원로목사 추대 및 담임목사 취임식도 함께

화곡그리스도의교회는 지난 10월 22일(주일) 오후 4시 동 교회 본당에서 창립50주년 기념예배를 드리고, 전창선 목사의 원로목사 추대 및 임성택 목사(그리스도대학교(현 KC대학교) 전 총장)의 담임목사 취임예배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이준 목사의

사회로 박영순 목사의 기도, 성가대의 찬양 후 이봉훈 목사가 담무 4:7-8 말씀을 본론으로 ‘의의 면류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다. 예배는 계속해서 예전해 장로의 연혁보고, 기운서 목사의 창립 50주년 기념사, 공로배 증정 순으로 진행됐다.

2부 원로목사 추대 및 담임목사 취임식은 하용수 목사의 사회로 전창선 원로목사에 대한 추대사(조해연 장로), 추대배 전달(예전해 장로), 감사배 전달(이정호 안수집사), 예물 증정(문혜숙)에 이어 이치호 박사의 격려사, 고성주 목사의 축사, 전창선 원로목사의 답사 순으로 진행됐다.

임성택 목사 담임 취임은 서약 및 공포(유홍준 목사), 취임패 전달(노희주 장로) 후 조병근 목사의 권면, 최재봉·박유선·이영택 목사의 축사 순으로 이어졌다.

임성택 목사는 담사를 통해 “3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 감사하다. 앞으로의 시간을 헌신적으로 목회에 전념하겠다”고 다짐했다.



대한민국에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광주지방회

광주지방회(회장 정영기 목사)는 지난 10월 10일(화) 오후 7시 순복음장흥온교회(담임 조은주 목사)에서 제28회 목회자기도회를 가졌다.

이날 기도회는 총무 조은주 목사의 사회로 부회장 최정식 목사의 기도에 이어, 총회장 김영진 목사의 설교로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 기도회를 가졌다.

광주지방회 교역자들은 매월 둘째 주 화요일에 모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총회와 지방회를 비롯하여 목회자와 지교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번 기도회는 총회장 김영진 목사와 함께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사용받아 우리 대한민국에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 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한바람을 기원하며 기도했다.



이어서 지방회와 지교회 그리고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특별히 미지립 교회들이 지립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크신 뜻을 위하여 사용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증경회장 김정식 목사의 축도로 기도회

를 마치고 순복음장흥온교회에서 준비한 맛있는 대회를 나누며 저녁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정담을 나누며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배려하는 아름다운 시간을 통하여 크게 힘을 얻고 위로받는 귀한 시간이었다.

주왕산 산행하며 단합과 친교 나눠

대구경북지방회

대구경북지방회(회장 김영준 목사)는 지난 10월 19일(목) 오전 10시 경북 청송군 부동면 이천리에 소재한 주왕산 절골계곡과 주산지 저수지에서 산행을 가졌다.

이날 산행은 매년 가을에 갖는 정기 산행으로 우리 지역에 아름다운 단풍으로 유명한 청송 주왕산 절골계곡 산행과 물 가운데 왕버들로 이름난 주산지 저수지를 둘러보며 계절에 순응하여 아름다운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연의 순종이 주는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다.

지방회원들은 산행에 앞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기를 시작으로 총무 정진화 목사(대전사랑교회)의 사회, 부회장 도명수 목사(동해안순복음교회)의 대표기도, 증경회장 강태진 목사(안동성곡교회)의 말씀선도 순으로 예배를 드렸다.

강 목사는 설교를 통해 “교회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우리 목사들이 올바른 사명관을 갖고 이를 바탕으로 진리의 복음을 전하자”고 강조했다.



이어서 지방회장 김영준 목사(갈릴리온소망교회)의 인사말과 차별금지법 반대 설명에 이어 지방회를 위해, 우리의 사명을 위해, 산행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예배 후 도시락으로 산장에서 오찬을 나누고 본격 산행을 시작하였다. 절골계곡은 주왕산에서도 가장 운치가 뛰어난 천혜의 계곡으로 기암괴석의 위용과 흐르는 맑은 물이 어우러진 조화의 풍광을 즐기며 대운 다리까지의 정해진 코스를 걸으며 지방회 회원의

단합과 친교의 시간을 갖고 모두가 목직지에 도착하여 기념 촬영을 하였다.

하산하여 절골계곡에서 가까운 주산지 저수지로 이동하여 목사 사모와 함께 걸으며 가을 정취를 느끼며 함께 담소하고 사진을 찍는 여유롭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으며, 장소를 이동으로 옮겨 하마문 목사(순복음성산교회)의 감사기도와 저녁식사 기도 후 맛있는 저녁식사를 나누는 것으로 모든 산행 일정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각자의 목양지로 향하였다.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힘써 일하는 목회자 다짐

충서지방회

충서지방회(회장 차흥식 목사)는 지난 10월 17일(화) 보령시에 있는 주교소망교



회(담임 김현덕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지방회 화합과 발전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였다.

이날 예배는 총무 김영권 목사의 사회로 오재우 목사의 대표기도, 회장 차흥식 목사

의 설교와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차 목사는 마 5:1-4 말씀을 본문으로 ‘가난과 애동’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현 시대의 많은 목회자들이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심령의 가난함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목회자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며 “자기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애동하지 못하고 이웃의 죄를 보면 서로 애동하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은 가난한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자신의 죄를 애동해하고 회개하면서, 그리고 아프고 가난한 이웃을 끌어안고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힘쓰는 목회자들이 되자”고 전하였다.

이어 주교소망교회에서 준비한 풍성한 오찬을 마치고, 친교의 순서로 볼링을 하면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세속에 타협하지 않는 사역자들이 되자

여교역자국

여교역자국은 지난 10월 16일(월) 오전 11시 경기도 오산 순복음임마누엘교회(신동

숙 목사시무)에서 임원회의를 가졌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최영희 목사의 사회로 최영희 목사의 대표기도, 국장 한순남 목사의 설교, 안선자 목사의 헌금기도와 지분 신동숙 목사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한 목사는 엡 6:10-17, 계 21:2 말씀을 본문으로 ‘신부로 단장하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의 군사로써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무장과 단장의 뜻을 깨달아 세속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 삶을 감당하며 전하는 사역자들이 될 것”을 강조했다.

이어 교단과 여교역자국, 순복음임마누엘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친 후 김순자 목사의 기도회로 회의가 시작되었다. 먼저 추계성령충만수련회 보고 및 활동보고와 12월 송년회 행사를 개최할 것을 결의하였다.

송년회 행사는 오는 12월 11일(월) 일산 벨엘교회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순복음한양교회(담임 김효신 목사)를 방문하여 합심기도 후 모든 순서를 마쳤다.

흔들림 없이 순종하는 주의 종이 되자

경기중앙지방회

경기중앙지방회(회장 유석구 목사)는 지난 10월 12일(목)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행복한순복음교회(담임 김정순 목사)에서 정기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예배는 총무 이봉기 목사(순복음보리울교회)의 사회로 신근철 목사(구리순복음교회)의 대표기도, 부회장 한상용 목사(순복음성령의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한 목사는 롬 1:1-2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주의 종은 자기를 포기하고 주인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주의 종으로서 흔들어도 흔들림 없이 순종하는 주의 종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



다. 이어 김순형 목사(이집빛순복음교회)의 헌금기도, 증경회장 이은순 목사(은혜외승리교회)의 축도로 예배순서를 마쳤다.

2부 월례회 순서에는 임요셉 목사(순복음안디옥교회)의 교단가침 및 지방회 가침

인사, 경기지방회와 경기중앙지방회의 체육대회에 관한 광고 및 안전을 논의한 후 행복한순복음교회에서 준비한 오찬을 나누며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기로 월례회 행사를 마쳤다.

부산지방회

부산지방회(회장 조병희 목사)는 지난 10월 17일(화) 오전 11시 새문계 이전한 순복음세움교회 새 교회당에서 부산지방회 10월 월례회를 갖고 지방회 각종 회무를 처리하였다.

이날 예배는 총무 김태주 목사(순복음부산우리교회)의 사회로 강광수 목사(순복음아비교회)의 대표기도, 최계순 목사(은혜순복음교회)의 성경봉독, 증경회장 고영권 목사(순복음한세교회)의 설교, 김연옥 목사(행복한선교교회)의 헌금기도, 증경회장 한명진 목사(은혜외평화교회)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예배 후에는 월례회를 갖고 지방회와 관련한 각종 보고와 회무를 처리하였으며, 월례회를 마치고 세움교회에서 준비한 맛있는

식사로 아름다운 사람의 교제를 나누며 산행에서 있을 교단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초청 목회자 세미나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였다.

본질로 돌아가는 목회자가 되자

경기지방회

경기지방회(회장 최은규 목사)는 지난 10

월 16일(월) 오전 11시 시온성 순복음교회에서(담임 유정숙 목사) 10월 정기월례회를 개최하고 각종 회무를 처리하였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총무 전하



세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회장 김병호 목사의 기도, 서기 임형선 목사의 성경봉독, 증경회장 김종연 목사의 설교, 회계 최금자 목사의 헌금기도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마 4:17, 왕상 22:29-26 말씀을 본문으로 ‘본질로 돌아갑시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지금이야말로 사역자들이 비본질이 아닌 본질로 돌아가야 할 때이며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고 영혼 구원에 집중하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한다”고 전하고 “목회자가 먼저 스스로 겸비하여 교회의 영적 고통을 짚는 심정으로 목회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예배를 마친 후 곧바로 정기 월례회를 거쳐 각종 회무를 처리하고 특히 경기지방회와 경기중앙지방회의 친선체육대회를 위해 세부 논의를 한 후, 각 회원교회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회자와 목회자지정을 위해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을 하늘 만끽

일산지방회

일산지방회(회장 박승호 목사)는 지난 10월 23일(월) 포천아일랜드와 신복온전에서



추계야유회를 갖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돌아왔다.

때를 따라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은총 가운데 울긋불긋 아름답게 수놓아진 가을 하늘 아래서 일산지방회 회원들은 야

유회를 통해 지방회 단합을 도모하였다.

이날 예배는 이종재 목사의 사회로 이재덕 목사의 기도, 증경회장 서영조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서 목사는 마 5:1-12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팔복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깨달아 실천함으로 성도들이 따라 올 수 있도록 하는 아름다운 사역자가 되자”고 회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였다.

예배를 마치고 포천아일랜드를 구경하며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며, 서로 담소를 나누고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또한 신복온전에 들러 온천을 하며 목회로 쌓인 피로를 풀었으며, 회원들의 섬김으로 애찬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야유회의 시간을 마쳤다.

■ 생명의 말씀 ■



이 광 신 목사

· 예하성 전 신학발전위원장
· 청주아가페교회 담임

대화의 단절, 이것은 인류사의 비극입니다. 그것은 에덴동산에 죄가 들어온 그 순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 순간부터 참된 대화는 없어졌습니다. 죄짓기 전에는 얼마나 아름다운 대화였습니까?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창 2:23).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자 자기 중심의 선악분별 즉 이기주의자가 되어버렸고 그 다음부터는 두려움, 의심, 변명, 책임전가, 시기 질투의 언어들로 변해 버렸습니다(창 3:10-13).

기인은 어떻습니까. 시기심과 질투로 인해 친 동생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들만의 언어, 즉 한 가지 언어로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벨탑을 쌓는 대역사를 시작합니다. 이때 그들에게 내려진 형벌 역시 대화의 단절, 그리고 언어의 불통으로써 민족대 민족의 이질감과 증오가 서로 흠여지게 만들어버렸습니다(창 11:6-9). 그 때 이래로 우리는 민족과 민족, 개인과 개인간의 끊임없는 불화의 역사를 창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서 미리 말씀하신 그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자 놀라운 의사 소통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을 때 여러 지방 사람들이 자기들이 태어난 곳의 언어로 분명히 들었던 것입니다(행 2:8). 이 사건이야말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의 비극을 극복한 사건이었습니다.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쌓았던

바벨탑이 무너짐으로 민족과 민족들이 서로 언어가 통할 수 없는 가운데 있었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던 사람들의 언어가 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갈 3:28).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예수 안에서 하나된 사람은 이제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 그 어떤 언어 장벽도 무너져버리고 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피상적 대화와 창조적 대화입니다. 피상적 대화는 자기 마음과는 관계없이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같은 한국 말을 해도 이기주의적인 편견과 고집이 가득할 때 의사소통이 안됩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형제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람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행 2:38) 이 때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천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창조적 대화입니다.

1. 성령에 따라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할 때 그것은 창조적인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렐 2:13)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요일 5:14-15).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

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한다고 전국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전국에 간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2. 성령에 따라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롬 5:5)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요일 4:7-8).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영생의 삶을 사는 성도가 하는 말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말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 강림절이 가까워 오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복음)을 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요 16:13-14)

학교는 청소년들의 성적 욕구 충족 방법과 배출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고, 성이 가진 아름다움과 그것으로 인한 남녀의 바른 역할을 가르쳐 건강하고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도록 교육하는 곳이 되어야 마땅하다.

이에 대하여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는 덩달아 분별력을 상실하지 말고, 차분하게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정부 차원의 지혜를 갖게 되기 바란다.

그리고 교육부는 지난 2015년에 만든 <성교육 표준안>을 견지하고, 오히려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바로 잡아 지켜나가기 바란다.

우리 청소년들은 교육을 통하여 성의 아름다움을 배우고 순결을 지킬 권리가 가지고 있음을 잊지 말라.

제발 기성세대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우리 청소년들을 수단으로 이용하며, 성을 문란한 나라로 끌어내리는 부끄러움을 범하지 말기를 바란다. 정말로 책임감 있는 어른들이 되기를 바란다.

동 정

나사렛대 2018학년도 수시 면접



나사렛대학교(총장 임승안)는 수시모집 지원자 5,100여 명을 대상으로 2018학년도 수시 면접고사를 지난 10월 14일(토) 실시했다.

간호학과를 비롯해 40여 개 학과에서 신입생 1,235명을 선발하는 이번 면접고사는 학과에 대한 이해도와 지원 동기, 발전 가능성, 발표력, 인성, 성실성과 성취의욕 등을 살피는 심층 면접으로 진행됐다.

구세군 김필수 사령관 캠페인 동참



한국구세군(사령관 김필수)이 ‘이웃사랑’을 내세우며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나부터’ 캠페인에 동참했다. ‘나부터

캠페인’은 한국교회 23개 교단이 CBS, 국민일보 등 한국교회의 언론기관들과 함께 우리 사회의 개혁 운동을 한 걸음 더 진보할 수 있도록 ‘작은 실천’을 다짐하고 격려하는 범국민적 캠페인이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집회



예수사랑교회 이강평 목사는 오는 10월 29일(주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삼전로교회에서 ‘2017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집회’를 개최한다.

백종구 교수(서울기독대와 조동호 그리스도의교회연구소 소장이 각각 발제하며, 백 교수는 한국그리스도교의 교회 교단의 설립 배경과 성경관 등을 집중 조명한다.

제4회 세계가나안농군 세계대회



제4회 세계가나안농군운동본부(WCM, 총재 김경일 장로) 주최 세계대회가 오는 10월 28일(토) 오전 10시 30분 서울 용산구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열린다. 개최! 가나안, 지구촌을 복되게 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 대회는 각국 가나안농군학교 교장의 개척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가나안의 지속 가능한 빈곤 극복 모델을 나눈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교육부의 <성교육표준안>은 그야말로 ‘표준’이 되어야 한다

지난 10월 10일(화) 298개로 구성된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이하 동반연)에서는 오전에 국회와, 오후에는 세종시에 있는 교육부 앞에서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동성애 옹호 교육을 포함시키려는 개정 시도를 강력히 반대하며, 현행 성교육 표준안 내용을 적극 지지한다”는 내용으로 집회를 가졌다.

또 이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뜻을 모은 82,413장의 서명서도 교육부에 제출하였다.

동반연이 집회를 한 이유는 지난 2015년 교육부에 의해 만들어진 <성교육 표준

안>에 대하여 일부 시민단체와 정부 쪽에서 이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점을 살펴보면, 십 대 여성도 성을 즐길 수 있는 ‘프리섹스 이태올로기’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함으로 동성애와 동성혼을 조장한다는 점, 학교에서 다양한 성 즉,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등을 가르치라고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자유로운 성관계를 권장하는 교육을 하라는 점 등이다.

예 어른들과 정부 쪽에서 이러한 편향되고 왜곡된 ‘성교육’을 주장하고 있는 것

인가?

이렇듯 지나치는 청소년들에게 ‘성’을 통한 ‘성 정치’ ‘프리섹스 이태올로기’ ‘동성애 조장’을 담은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성교육 표준안>에 들어가게 해서 절대 안 된다고 본다.

현 <성교육 표준안>을 폐지하는 것을 주장하는 단체들은 지난 8월에 17,000여 장의 서명서를 받아 교육부에 접수한 바 있는데, 과연 이들이 청소년들의 바른 미래와 그들의 참다운 인격과 인권을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 정체성 확립도 되지 않은 우리 청소년들을 그림자한 유혹으

로 ‘성 정치’의 희생물로 삼으려 하는지는 곧 밝혀질 것이다.

이런 과격 단체들의 주장대로 했을 때 과연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가게 될까?

청소년들은 기성세대가 바른 교육을 통하여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한다. 그런데 청소년들에게 국가 차원에서 바른 성교육의 목적으로 표준안을 만든 것조차 자신들의 기준과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고치라고 압력을 넣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이며 국가 미래를 위해서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 아 래 —

- 1) 일 시 : 2017년 11월 27일(월) 오후 1시 (12시부터 점심식사)
- 2) 장 소 : 총회본부(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TEL. 02-2675-5181~3)

*점심식사 등 준비관계로 참석여부를 11월 20일(월)까지 총회본부(02-2675-5181~3)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0월 28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총 회 장 목사 김 양 인
총 무 목사 엄 기 설

경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이유

《성경은 경영학 교과서입니다》의 저자 잭 하트만은 성경은 경영학 교과서라고 하면서 물질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영혼 구원에 관한 그분의 약속을 확신한다고 말할 수 있었는가? 라고 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아 부자 되는 것을 원하신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잠 10:22) 성경은 경제부흥의 영적 정보를 제공해주는 경영 교과서로서 성경에서 돈은 2360번이나 거론되는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고 배울 기회도 없는 주제가 바로 돈이다.

오늘날 한국의 많은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물질적 부요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단 악의 뿌리’라며, 가난을 경건이라고 가르친다. 그래서 성도들은 돈 버는 방법이나 돈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세상에서 배울 수밖에 없고 한국교회는 빠른 속도로 세속화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회가 130년 역사 가운데 성공과 축복을 계속적인 것으로 죄악시해 왔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성경적 경제부흥에 대한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성도들이 성경적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세계선교를 담보하는 길이다.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이 근면, 성실을 통해 재산이 증식되어 하늘에 보물을 쌓기 위해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중요한 성경에 나타난 경제에 대한 교육을 한국교회가 등한시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오늘날 성도들이 성경에 기록된 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성경적 경제 부흥의 축복을 받아 구제와 선교와 전도 그리고 인종

적으로 교회 부흥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아 경제부흥을 누리고 번영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히 6:14)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갈 3:14)고 하셨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신다. 아브라함의 복은 천대까지 흐르는 축복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신앙교육의 적임자였다(창 18:19)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경제는 하나님이 주신 최대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다(전 10:19). 그러므로 돈이 우상이 되지 않고 섬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선교과를 먹지 말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생명과를 가르쳐 주어 생명과를 먹게 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의 신앙이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경외의 신앙, 즉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을 살 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우상이 될 수 없고 아무리 큰 부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고 타락하지 않고 돈이 일단 악의 뿌리가 아니라 일단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는 것이다.

장구한 부자가 되려면 수고와 땀으로 형성한 재산을 자녀들이 잘 지키고 선용하도록 자녀들에게 경제교육을 해 부자의 기본자세를 갖추게 하라. 성경적 경영윤리를 가르쳐 정직, 부지런함, 겸손한 생활과 절약, 저축, 구제 등 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태도를 가지면 선전의 재산을 지킬 수 있다. 부활산대라는 말이 있다. 경제교육은 아랍수목 좋다. 유대인이 세계 경제를 주도한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조상세대부터 십일조 신앙과 어려서부터 성경적 경제교육을 한다는 사실이다.

한국교회도 주일학교 초, 중, 고, 청소년들에게 특히 기업을 하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경제윤리와 돈의 가치부여 그리고 직업의 세계관의 경제교육을 시켜야 한다. 우리 모두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 대안이다.

그리고 경제교육은 부모가 어려서부터 주도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다.

교회들이 성경적 경제부흥의 행동의 법칙을 가르치고 또 성도들이 그것을 배우고 삶에 적용시킨다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재정적인 축복들을 교회에 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이유는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인성이 되라는 것이다. 부자가 존경받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재산의 일부를 의미 있는 일에 기부하는 것이다. 경제는 흐르는 것이고 또 흘러가야 하는 것이다. 경제부흥이 나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라.



기독교 영화

정상윤 교수(한국신학회 회장 / 전 성결대학교 총장)

복음의 생활화, 문화화

—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영화 ‘루터’를 추천하며 —



조석으로 삼삼한 비雨が 불고 하늘이 높은 것을 보니, 완연한 가을로 들어선 것이 스스로 체감된다. 북핵 위기로 나라가 뒤숭숭하니 이 좋은 계절, 오랜 가을 끝에 내린 한줄기 단비와 같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일 이 있다. 그것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나라에서도 10월 18일부터 영화 ‘루터’가 상영된다.

기독교 영화가 개봉될 때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기대 반 실망 반이란 말이 맞는 것처럼 기독교 영화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다. 기독교 영화에 대한 반응이 왜 그럴까? 영화를 보기도 전에 이미 앞서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근본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그 원인 중의 하나는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문화적 사명대한 한국교회의 의식 부족을 들 수 있다. 현실적으로 한 편의 영화를 제작하여 영화관에서 개봉한다는 것은 소위 성공할 수 있을 필요 충분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예를 들면, 많은 난제를 극복하여 매우 감동적이며 우수한 영화를 제작했다고 하여도 그것을 상영할 개봉관을 확보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영화관들은 흥행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기독교 관련 영화를 외면하고 선호하지 않는다. 그 결과 우수한 기독교 영화라도 전국의 영화관 몇 곳에서 겨우 상영되는 것에 머무르고 동원 관객 수도 초라한 성적표를 거두는 것으로 대부분 마감 된다. 한국교회는 일천만 교인을 가진 종교라고 하지만, 기독교 영화에 대한 10만 명의 관객 수를 채우는 것도 버거운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리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로 인해 기독교 영화의 상영 시간대도 황금 시간대에서 찾기가 힘들다. 상영 첫 타임 패나 마지막 시간대 상영이 다반사이다. 기독교 영화 상영의 현실은 이처럼 열악하고 냉혹하다.

더구나 기독교 영화에 대한 한국교회(목회자)의 관심은 극도로 저조한 상태에 있다. 기독교 영화 상영에서 영화관이 확보하고 텅 비는 것은 대부분 목회자의 관심에 달려 있다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한다. 이는 한국교회의 무관심 속에 기독교영화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일 것이다.

더 큰 어려움은 기독교 영화 상영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다. 일부 목회자들은 기독교 영화를 영화관에서 관람하기보다 개봉이 끝난 후 교회에서 편하게, 적은 비용으로 관람하겠다는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 이에 기독교 관련 영화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 개봉된 사실도 모르고 지나쳐 버리는 목회자들에 비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좀 더 나을지도 모르겠지만, 개 교회에서의 상영은 기독교 영화 제작사와 배급사에 큰 어려움을 가져다준다. 이는 더 좋은 기독교 영화 제작에 걸림이 되고, 영화관 대관을 더 힘들게 만든다.

더 황당한 경우는 교회가 불법 다운을 받아 상영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가끔 벌어진다는 사실이다.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불법적인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 못해 참담한 마음까지도 들게 된다.

세계에서 영화관람 1위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말처럼 한국인의 영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어느 나라보다 높게 나타난다. 한 해에 국민 1인당 영화 관람이 4.22회이다. 2위 아일랜드(4.0)보다, 4위 미국(3.6)보다 월등하다. 영화로 거둬들인 한 해 수익만도 2조 2천억 원에 육박한다. 이런 우리의 현실을 목도하며, 한국교회는 여기에서 직시해야 할 것이 있다. 기독교 신앙의 문화화와 생활화를 통해 복음선교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

한국교회가 진정으로 복음의 생활화, 문화화를 통해 세상을 향해 열려 있을 때 한국사회에 기독교 문화가 팽배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이 땅에 복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 열매를 거둘 수 있다.

문화는 시대의 ‘창’이다. 그리고 문화는 시대의 지식이며 동시에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간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양질의 기독교 영화제작과 보급에 관심을 쏟고 기독교 메시지를 담은 영화를 매체로 하여 세상과 소통하는 창으로 만들며 선교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

2017년 올해 들어와 유일하게 천만 이상 관람객이 몰린 영화가 ‘택시운전사’이다. 지나간 역사의 진실을 묻고 대답하는 한 편의 영화는 계층과 세대에 관계없이 많은 반향과 공감대를 이루어 냈다. 한 편의 영화가 가지는 대중문화의 힘은 이처럼 대단하다. 한국교회는 낮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영화를 통한 기독교 문화 저변 확산에 관심을 가지고 힘을 쏟아야 한다.

성경적인 기독교 가치가 전도되고 해가 갈수록 진리로부터 멀어져 가는 현대인에게 복음의 진리 안에서 참 자유와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주는 한 편의 영화 ‘루터’는 많은 감동과 교훈을 주고 있다.

루터는 면밀부 남용에 대한 토론의 목적으로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교회에 95개 논제를 붙임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중세 로마 가톨릭교회의 붕괴작용에 불꽃을 붙이고 타파하며 그 결과 기독교를 새롭게 갱신시킨 종교개혁운동이 일어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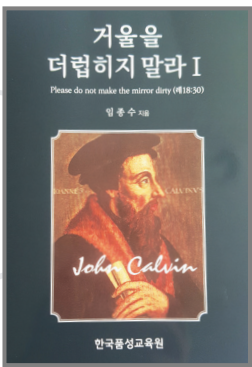
이런 한 달 500년 전 그 날을 기념하며 의미를 되새기고자 하는 다양한 기념행사와 학술대회가 있지만, 이 영화보다 한국교회에 분명한고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교회를 초월하여 강력히 추천하고 싶은 영화가 바로 ‘루터’이다.

이 가을을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제작된 영화 ‘루터’를 통해 한국교회가 복음과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세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소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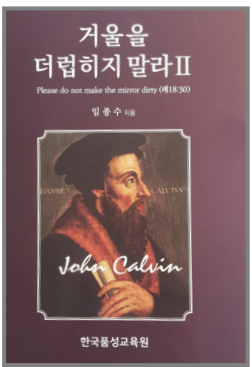
총회신학교 후원에 다같이 참여합시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후원회
계좌번호 농협 302-0928-2103-51 / 예금주 임종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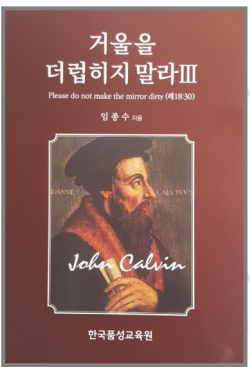
믿음은 구원으로 인도하고 품성은 행복과 성공으로 인도한다



제1권 품성과 비슷한 덕목인 성격, 덕성, 인격, 개성을 바울은 어떻게 개발하였는가? 이조 500년 유교와 고려 500년 불교가 만들어낸 윤리 도덕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윤리부분 7가지와 자기 계발의 부분에 필요한 10가지를 논하였다.



제2권 대인관계 부문 10가지와 신사적인 성도가 되기 위한 품성 4가지와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품성과 더 좋은 것과 가장 좋은 품성이 무엇인가를 논하였다.



제3권 부정적인 품성 6가지와 영적전쟁의 품성 10가지와 신자가 물리쳐야 할 세력들 즉 점과 자살 인종차별과 이단척결을 논하였고 올바른 생활을 위한 실천분야 5가지를 논하였다. 만약 이 책을 매일 한 과씩 훈련한다면 훌륭한 시자가 될 것이다. 곧 새 언약과 품성과 자유의 대 헌장 두권이 출판 될 것이다.

품성은 성공과 행복의 열쇠이다. 품성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올바른 일을 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이다.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는 영적인 면만 강조하였고 육체를 가진 인간의 삶에 대해서는 등한시 하여 삶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야 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남의 발에 고추를 따가는 생활이 그 대표적인 이야기이다. 그래서 저자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영적훈련을 해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품성에 관한 책자를 7권 출판하였다. 최근에 출판된 거울을 더럽히지 말라는 1,2,3권을 소개하고 한다.

강의 안내

각 교회에서 시행되는 각종 중직자 세미나
각 지역에 거주하는 목회자들의 소 그룹

책 구입처

cslim4305@gmail.com 임종수 원장
재무담당 이미란 이사 010-8618-9982
계좌번호 농협 351-0771-1742-13
한국 품성교육원

2017 전국 사모단합대회 2박 3일간 제주에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 133:1)

‘주 안에서 하나 되자’ 주제로

교단 전국사모회회장 한정은 사모는 지난 10월 16일(월)부터 18일(수)까지 2박 3일간 제주한미음교회(담임 김건수 목사)와 제주지역 일원에서 2017 전국 사모단합대회를 개최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땅 끝까지의 복음전파를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1백여 명의 전국사모회 회원들은 교회 안팎으로 비빔밥과 미음 써야할 일 등으로 분주한 시간을 보내다가 오랜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제주의 푸른 바다와 하늘, 청정 원시림 숲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사랑나눔의 귀한 시간을 함께 했다.

전국사모회 회원들은 첫날 오후 2시 전국에서 제주에 온 1백여 명의 회원들이 한미음교회에 모여 먼저 하나님께 교단 총회장 김양인 목사(목양제일교회)를 감사로 하여 개회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돌렸다.

교단 총회장 김양인 목사는 고전 15:57,58 말씀을 본문으로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수고’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목회현장에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사모들의 충성과 헌신에 감사의 뜻을 함께 귀한 헌신

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강조하고 격려와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다.

전국사모회 회장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섬 제주에서 2017 전국 사모단합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고 후원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준 회원들 모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교단과 교회를 위해서 더욱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회원들은 2박 3일간의 대회 기간 동안 제주도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절물휴양림과 에코랜드, 외돌개, 세연교을래길, 산방산유람선 탑승 등 다양한 일정을 회원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고 셋째날 오전 한미음교회에서 교단 부총회장 임웅재 목사(산정리순복음교회)를 감사로 폐회예배를 드리고 일정을 마무리했다.

임목사는 이날 막 12:24-27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모두가 될 것을 강조했다.



전국사모회 회원들은 귀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교단과 임원진에게 감사드리고 이번 대회를 통해 활

력을 얻고 더욱 교단과 교회를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하고 다음에도 만날 것을 기약하고 서로의 목양지

로 향했다.



경남 산청지역 목회자 세미나

주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빌3:14)

강사



조용목 목사

약력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역임
(사)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대표회장 역임
(사)한국기독교문화예술원 명예총재(현)
(재)참수리사랑 이사장(현)
한국신학회 이사장(현)
세계하나님의성회 실행위원(현)
은혜와진리교회 담임(현)

회장



이성환 목사
산청군기독교연합회
한우리전원교회

회장



심재범 회장
산청한방가족호텔

일시 2017년 11월 7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산청한방가족호텔
경남 산청군 금서면 동의보감로 479번길 43
(예약 문의 055)972-7000, www.dkfh.kr)

주최 산청군기독교연합회(회장 이성환 목사)

후원 예하성 부산지방회·부산동지방회
경남지방회·전라지방회



산청 한방가족호텔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한 전진대회』를 마치고

10월 14일 청계천 한빛 광장 집회에 대한 소감

2017년 10월 14일(토) 오후 1시 청계천 한빛 광장에서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한 전진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러나 집회가 가진 의도가 달랐었고 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집회를 개최한 입장에서 10월 14일 집회는 말로써 표현하기 힘들고 괴롭고 두려움이 있는 집회였습니다. 피하고 싶은 집회였습니다. 집회를 마친 지금까지도 심히 괴롭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WCC 물결에 젖어 돌아가는 상황이 안타까워서 교회(종교개혁 500주년과 WCC 반대운동4주년을 즈음하여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한 전진대회』로 의도하고 개최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집회 개최 취지문과 결의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집회를 개최한 WCC 반대운동대의 의도이고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회 예정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절망을 느꼈고, 답이아니 집회를 개최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휩싸였습니다.

합동교단이 금번 9월 102회 총회에서 WCC 교단들과 함께 ‘각 교단이 갖고 있는 신학적 정체성과 전통을 그대로 존중’하고서 창립한 연합단체 안을 총회가 받아들이기로 결의하였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는 몽둥이로 온몸을 두들겨 맞은 것 같았습니다.

합동교단이 ‘각 교단이 갖고 있는 신학적 정체성과 전통을 그대로 존중’하고서 WCC 교단들과 함께 연합단체를 창립한 이것은, 통합교단과 NCK가 종교다원주의 노선인 것과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과 정통 기독교회를 가톨릭에 일치시켜 정통 기독교회의 역사가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정체성을 그대로 존중하고 연합단체를 창립한 것이고, 이를 총회가 받아들이기로 결의하였기에 팔복 한 그릇에 정자의 명분을 팔아 버린 어서와 같은 망명된 행실이 아닐 수 없었기에 숨이 막힐 정도로 정말 답답했습니다.

시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많은 분들이 모인 큰 집회는 아니었지만, 또 지금까지 한국교회사에 있어 왔던 수많은 대규모 집회에 비하여 아주 초라한 모양새였지만, 그러나 가장 무거운 집회였다는 믿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로서 첫째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과 NCK가 정통 기독교회에 대해 배교자로, 역적으로, 반역자로 선포가 된 집회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과 백성교단과 한기총 등이 종교다원주의 WCC 교단들과 함께 ‘각 교단이 갖고 있는 신학적 정체성과 전통을 그대로 존중’하고서 창립한 연합단체 안을 받아들이기로 총회가 결의한 사실에 무서운 경고의 나팔이 울렸기 때문입니다.

10월 14일 청계천 한빛 광장에서의 집회의 핵심이 위 두 가지였습니다. 이 핵심을 알아챈 것은 집회를 앞둔 불과 3일 전이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이것이 집회의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집회 당일 아침에 행사 준비를 하는 목사님께서는 현수막 하나를 나무에 걸고자 준비해 왔습니다. 현수막 내용 중에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한 전진대회 큰



글씨 아래 동성애 반대 등의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나무에 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까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을 비롯한 NCK가 정통 기독교회에 대한 배교자로, 반역자로, 역적으로 선포되는 집회였고, 이들과 연합한 나머지 교단들에 대한 경고성 집회였기 때문이며, 이 같은 사실을 불과 집회 3일 전에서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격의 집회를 주최하고 개최한 연대의 입장에서조차 그 전까지는 사실상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몰랐던 것입니다.

집회를 마치자 맑은 하늘에 무지개가 뿔었습니다. 징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지만, 부여해 본다면 슬픔의 징조 표적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과 NCK가 한국교회 800만 명 중에 절반 4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합동교단과 백성교단과 한기총이 약 400만 명이 됩니다. 이들을 다 합치면 한국교회 95%가 됩니다. 95%가 되는 한국교회가 2017년 10월 14일은 재앙을 당하고 경고의 소리를 들은 날입니다. 한국교회 절반이 배교자로, 역적으로, 반역자로 선포되고 나머지 절반은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했으니 말입니다.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한 전진대회』가 10월 14일자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는 단회적인 집회가 아니라 시작할 것이고 출발한 것입니다. 맑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긴 시간이 요할 것이고, 많은 수고와 희생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통합교단과 NCK는 루터와 칼빈 등 믿음의 선진들로 말미암은 기독교회였습니다. 이에서 태어났고 이에서 자랐고 성장 부흥하며 존재하였습니다.

그런 통합교단과 NCK가 WCC 물을 먹고 기독교회를 가톨릭에 일치시켜 없애 버리는 배교자로 반역자로, 역적들로 개종 당해 변종되어 버렸고 이를 책망하고 바른길을 제시하여야 할 합동교단과 백성교단과 한기총이 도리어 그 같은 통합교단과 NCK의 행위를 그대로 존중하고 연합단체를 창립하였고, 이를 총회가 받아들이기로 결의하였기에 이러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더 이상 한국교회는 루터와 칼빈 등 믿음의 선진들로 말미암은 보수개혁, 복음주의 정통기독교회의 정체성이 아니라 종교다원주의 WCC의 정체성 곧 포용주의,

혼합주의가 정체성으로 접어들고 만 것입니다. 이 물결을 차단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저항세력이 강합니다.

그 좋은 예로서 102회 합동총회에서 가톨릭을 이교로 결의하지 못하고 차단된 것과 NCK 역시 마찬가지로 WEA(세계복음주의 연맹) 역시 이단적인 성향으로 교류 금지 대상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차단된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이미 합동교단 내에 포용주의, 혼합주의 정체성을 가진 세력이 포진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합동교단이 루터와 칼빈 등 믿음의 선진들로 말미암은 정통 보수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을 추구하는 본래의 정통 기독교회 정체성을 가졌다면 당연히 결의 통과될 사안들이 결의 통과되지 못하고 차단됨은 합동교단조차 정체성이 많이 개종이 되어 가고 변종되어 감을 엿보게 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한국교회 현실에서 루터와 칼빈 등 믿음의 선진들이 로마 가톨릭의 비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이고 이교적인 교리와 제도와 전통을 배격하고 성경적으로 개혁해서 본래의 기독교회로 회복한 정통 기독교회 역사를 잇기란 상당히 어려운 현실 처지입니다. WCC에 의해 너무 많이 개종 당해서 완전 변종된 한국교회 정체입니다.

이제 한국교회에 직면한 문제는, 중요히 여겨볼 문제의 대상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과 NCK입니다. 이들은 한국교회를 반 토막 낸 핵심 대적입니다.

핵심 대적을 끼고서, 손을 잡고서, 한동속이 되어 있으면서, 이들을 그냥 둔 채로 WCC 반대하는 소리는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통합교단과 NCK가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앞에 공개적으로 사죄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가차 없이 배격하고 한국교회에서 퇴출 시켜야 합니다. 이 일에 한국교회는 나서야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한 전진대회를 개최하였으니,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행할 바를 고민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장시간 동안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한 전진대회에 함께 동참하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송준길 목사(WCC 반대운동 연대)

글로벌선진학교 교류확대

미국 펜실베이니아 캠퍼스 업무협약

글로벌선진학교(이사장 남진석 목사)는 지난 10월 24일(화) 오전 11시 기자회견회를 갖고 2015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에 개교한 글로벌 펜실베이니아 캠퍼스가 다양한 활동과 MOU체결을 통해 다른 학교와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펜실베이니아 캠퍼스는 지난 9월 19일 미국 동부의 명문 기독교사립대학인 윌슨대학(총장 바바라 미스틱)과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선진학교 학생은 대학 진학 전 윌슨대학의 이공계 과목을 수강할 수 있고 이수학점을 대학에서 인정받으며도 윌슨대학의 수업료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지난 10월 10일 스코틀랜드 캠퍼스와 편입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스코틀랜드 캠퍼스에서 운영중인 스포츠 코너부 육성 프로그램의 60여 명의 현지 학생이 글로벌선진학교 펜실베이니아 캠퍼스에 편입학을 하게 된다. 해당 학생들은 미 동부지역

의 각 도시 및 여러나라에서 모여든 고등학생으로 농구 및 야구로써 미 프로선수 및 대학선수 등 스포츠 관련 분야의 진로를 희망하고 있는 학생들이다.

이사장 남진석 목사는 “학력이 낮은 개발도상국에 가면 우리 학생들은 탁월한 학생이 된다”며 “전략적으로 학생들을 개발도상국으로 보내 그 나라를 풀고 그곳을 발전시키는 지도자의 꿈을 주는 것이 글로벌 프로젝트”라고 밝혔다.

글로벌선진학교는 경건한 신앙훈련을 바탕으로 한국교육의 장점과 미국교육의 장점을 융합시킨 이상적인 국제학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훈련해 장차 지구촌의 100여의 세계인을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2003년 개교 후 음성, 문경, 미국 펜실베이니아 캠퍼스에서 다음 세대를 이끌 크리스천 인재양성에 전력을 쏟고 있다.

문의 054-559-7043



월드비전, ‘세계 여아의 날’ 기념행사 개최

아프리카 소녀들의 건강과 평등한 교육 기원

국제구호개발NGO월드비전(회장 양호승)이 UN 지정 세계 여아의 날(10월 11일)을 맞아 아프리카 소녀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는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은 월경으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 및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국내외 여아들을 위해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10월 11일(수) 명지대학교에서는 명지대학교 사회봉사단 학생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크리스마스 선물 상자를 제작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월경으로 인

해 고통받는 여아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따뜻한 마음을 담은 면 생리대를 선물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또한, 아프리카 소녀들을 응원하기 위해 크리스마스 카드를 작성하고, 400개의 면 생리대로 만든 1.5m 높이의 크리스마스 트리도 함께 공개하며 아프리카 소녀들의 건강과 평등한 교육 기회를 염원했다.

월드비전 마케팅부문 어호선 부문장은 “세계 여아의 날을 맞아, 전 세계 여아들이 마주한 불평등 중 하나인 월경을 이슈로 기념행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월드비전은 월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8년도 목사고시 공고

2018년도 목사고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서 류 접 수 : ① 일시: 2017. 8. 31(목) 17: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② 장소: 총회본부(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③ 방법: 등기우편

* 목사고시청원서 작성 및 제출 안내: 총회홈페이지(www.aogk.org)→ 자료실→ 서식다운로드→ 교단서식→ 제15호 목사고시청원서(구비서류첨부)→ 2부 작성→ 지방회에 제출→ 지방회임원회 심의→ 1부 지방회 보관, 1부 총회본부에 제출.

* 총회목회대학원 2학년 재학생은 우선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고, 12월 졸업과 동시에 ‘졸업증명서’를 제출한다.

2. 서 류 심 사 : ① 일시: 2017. 9. 07(목) 오전11시 ② 장소: 총회본부 회의실

3. 오리엔테이션: ① 일시: 2017. 9. 21(목) 오전10시 ② 장소: 총회본부

4. 목사고시료 : ① 납부일: 2017. 8. 31(목)까지 ② 금액: 50만원

③ 입금계좌 : 국민 061701-04-17686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5. 목사고시 : ① 일시: 2018. 2. 5(월)~6(화) 오전10시 ② 장소: 총회목회대학원 강의실

6. 전도사 경력 계산은 만으로 하되, 계산일은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7. 직장파 목사직은 겸할 수 없으므로 직장을 가진 자는 목사고시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8. 목사고시 응시 자격은 헌법 제37조 및 헌법시행규칙 제13조를 준용한다.

9. 서류심사 이후에는 목사고시 서류일체와 고시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 회 장 목사 김양인 고 시 위 원 장 목사 김인규
총 무 목사 엄기실 고시위원회서기 목사 이석호

기독교교회제모습찾기 11회 전국대회

교회제모습찾기 통해 제2의 종교개혁 일으켜야



(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연합회(이사장 이순주 대표회장 유영섭, 이하 예총연) 기독교교회제모습찾기협의회(회장 남윤국, 이하 기교협)는 지난 10월 12일(목) 서울시 종로구 여전도회관에서 '예수님을 닮는 제자'(요 13:34-35)를 주제로 제11회 전국대회를 갖고 현실 인식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회장 남윤국 목사는 대회를 통해 "금년 전국대회는 종교개혁 500주년 20여 일을 앞 두고 개최하기 때문에 다른 어느 때보다 의미가 깊다. 지금 한국 기독교 교회와 교단들이 드러내 보이는 현상은 중세시대보다 더 타락한 시대라고 진단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교계 지도자들이 마음을 찢는 통회자복함이 없이 한국교회가 종교개혁 500주년 행사를 개최한다면 그것은 위선이고 이리가 양의 탈을 쓰는 행위이자 돌부림에 회칠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남 목사는 이어 "우리가 23년 동안 매월 한 차례씩 월례기도회로 모여서 기도한 것처럼 목회자와 성도들이 나리와 민족을 위해, 성도가 성도되기 위해, 무엇보다도 목회자가 바로 서서 성도를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 앞에 교회가 교화다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부단히 기도한다면 예총연에 소속된 교회와 한국교회에 진정한 부흥을 하라함 주실 줄 믿는다"며 "끊임없이 기도하면 제2의 종교개혁이 기독교교회제모습찾기협회의 기도회를 통해 불같이 일어날 줄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대회는 우정은 목사(기교협 부회장)의 인도로 장정대 목사(부회장)의 기도, 홍종섭 목사(서기)의 성경

봉독 후 이순주 목사(이사장)가 녹 14:33 말씀을 본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 수준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이 목사는 "주님의 제임이 가까워진 오늘날 우리 교회는 평범한 교회, 세속적인 교회를 넘어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 제자수준의 교회로 도야야 한다"며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한다. 예수님이 전부여야 한다. 영원한 보물을 손에 넣기 위해서는 세상과 세상 것을 향한 사랑과 미련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또 "버린 신앙은 인간이 만들어낸 예수님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의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특별히 그분을 통해서 나타난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데 목표를 두고 살아야 한다"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아버지의 뜻이 옳으며, 깨달아진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순종하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고 고려했다.

이 목사는 끝으로 "요즘 교회는 자기중심주의 신앙으로 전락하고 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를 넘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열방에 알리기를 원하신다' 까지 가야 한다"며 "우리는 선교를 선택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 나의 존재 이유로 믿고 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도와 결단의 시간에는 김재환 목사(부회장), 이한중 목사(부회장), 김한빛 목사(영접분과위원장), 배재학 목사(예배분과위원장)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위해 △기독교교회제모습찾기협회의 회를 위해 △예총연 신하 25교단 및 4단체와 3천여 교회를 위해 특별기도했으며, 전해수 목사(홍보분과위원장)가 합심기도를 이끌었다.

크리스천 문인들의 '제3회 추수감사 시화전'

한국문화예술총연합회 주최, 한국문인선교회 주관

깊어가는 가을 크리스천 문인들의 추수감사를 주제로 한 시와 한 폭의 그림이 한데 어우러져 가을 향기를 머금고 우리를 걸로 찾아와 놓아여 가는 가을을 기쁨으로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 펼쳐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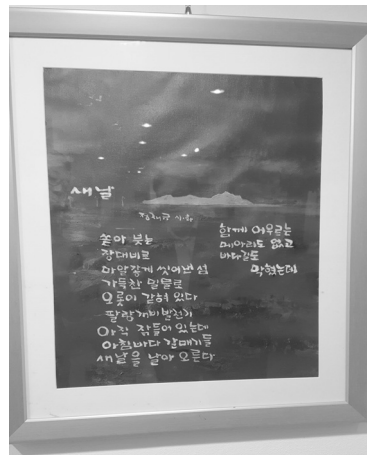
한국문화예술총연합회(회장 김수영 권사) 주최, 한국문인선교회(회장 정재규 목사) 주관 '제3회 추수감사 시화전'이 지난 10월 23일(월) 오후 2시 과천 선바위미술관에서 개관 타이프를 끊고 12일간의 전시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연의 아름다움과 한없이신 사랑을 노래하는 시와 그림의 향연이 펼쳐졌다.



전시회 개관에 앞서 드린 예배는 박성준 목사의 사회로 한국문인선교회 회장 정재규 목사의 말씀중거가 있었으며 정 목사는 창 1:2-4 말씀을 본문으로 '빛의 아름다움을 말하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신 빛의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통해 아름답게 승화시켜 그 빛으로 세상을 밝힐 수 있게 되기를 강조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박재현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관바로 2부 축하행사 순서로 이어졌다.

2부 축하행사는 아동문화가 김수영 권사의 사회로 감사절 시인의 기도, 한국문화예술총연합회 김수영 권사의 환영사, 정재규 목사의 인사말, 오경자 교수, 이성교 시인의 축사, 이정숙, 김연수, 이정균, 정용애 시인 등의 시낭송 순서가 있었으며, 석희구 목사의 폐회기도로 축하행사를 마치고 3부에는 다과를 나누며 담소를 나눈 뒤 작품을 감상했다.

이번 시화전에는 53명의 작가가 137개의 다양한 고수준 높은 작품을 내놓아 깊어가는 가을을 풍성한 은혜의 단풍으로 물들이고 있다. 이번 시화전은 10월 23일(월)부터 11월 3일(금)까지 12일간 선바위미술



관에서 계속된다.

△선바위미술관 02)507-8588, 경기도 과천시 무네마길 34(과천동 445번지) 지하철 4호선 선바위역 출구에서 80m 거리

송골 오동춘 시인 '깊신인생 나라사랑' 출판기념회

제18시조집 · 제2회 흙의 문학상 수상 시조집 · 제1시조집 등 엮어 출간

송골 오동춘 시인(화성교회 원로장로)이 그의 팔순기념 송골 제18시조집 · 제2회 흙의 문학상 수상 시조집 · 송골 제1시조집 '깊신 사람들' 함께 엮은 '깊신인생 나라사랑 출판기념회'를 지난 10월 14일(토) 오후 4시 광화문 한글회관 열람실교육관에서 가졌다.

이 출판기념회에는 오동춘 시인의 제자, 친지, 문화계 선 · 후배 등이 모여 노년임에도 불구하고 창작

활동에 여념이 없는 그의 노력에 큰 찬사를 보냈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임문학 박사(깊신수석 부회장) 사회로 이은수 목사(화성교회 담임)의 기도, 국민의례, 김명자 시인(깊신문학회 부회장)의 송골 소개, 김기영 목사(화성교회 원로) · 정종렬 장로(전장연 중경회장) · 권재원 박사(한글학회 회장) · 이근배 교수(중앙대 초빙교수)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계속된 기념회는 이은영 교수(숙명여대) · 오선경

깊신문학회 부회장의 시조집 간행사, 이은영 성악가 · 한글내림창찬단의 축하 · 후배가 본 오동춘 장로(차일환 · 양환남) 아우가본 오동춘형(오동해시랑) 제자가 본 오동춘 스승(김재능 연세대 교수 · 황용모 목사 · 조미순 시인) 김슬옹시인을 비롯한 11명 제자들의 시 낭송 오동춘시인의 인사 및 가족소개 순으로 이어졌다.

송골 오동춘 시인은 현재 깊신문학회 회장으로 수고하고 있다.

가족세트전도 참관기

두려움이 없는 전도의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가?

전도하러 나갈 때마다 나는 늘 두려움과 싸워야 한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 '괴연 사람들이 들어줄까?'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으로 시달리는 전도의 자신감을 떨어뜨린다. 더구나 아무도 없이 혼자 나간다는 두려움은 더욱 전도의 자신감을 잃게 만든다. 그래서 말씀을 소리 내어 읽고 기도하고 나가지만 결국 오늘도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전도물품만 전달하고 돌아온 것 같아 돌아올 때는 늘 허전한 마음이었다.

이렇게 하는 전도에 대해 시간이 흐를수록 회의론 느껴지며 새로운 전도방법을 찾던 중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평내순복음교회 박영수 목사의 가족세트전도는 지금껏 알아본 어떤 전도방법보다 탁월한 전도방법임을 알게 되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확신하고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지금껏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죄인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시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영접기도를 하게 하는 전도방법이다. 영접기도를 마친 사람은 담임목사가 축사에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와 일주일에 한 번씩 사업장 예배 약속까지 받아내며, 이름과 전화번호 가족사항 등 신상을 받아서 지속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전도의 열매를 거두는 전도방법이다.

오늘은 송파에 있는 예수 사랑교회에서 박영수 목사가 직접 도로변에 즐비한 영접장을 찾아가 회개기도와 영접기도와 축복기도를 한 후, 상대편의 신상을 기록하고 교회까지 불어는 전도의 시범을 보여 주었다. 전도를 나가기 전, 몇몇 사람들은 과연 이런 방식으로 전도가 될 것인지, 사람들이 순순히 기도를 받으며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줄 것인지 의심하였었다. 박 목사는 이런 무리들을 이끌고 거리로 나가 교회 바로 옆 가게부터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리고 인사와 더불어 기도하였다. 놀랍게도 1시간 30분 동안 약 20미터 남짓 거리의 가게들을 한군데도 빠지지 않고 다 들어가서 회개기도와 영접기도와 축복기도를 한 후, 가게 앞에 교패를 붙이고 기념 사진까지 촬영했다.

우리는 전도지를 나누는 일도 발걸음 떼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영접장을 들어가 축사에서 교회까지 불어는 전도하는 두려움 없는 전도의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전혀 주저할 없는 박 목사의 모습을 보면서 에스겔 3장 8절과 9절 말씀이 떠올랐다.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름을 마주보도록 네 이름을 굳게 하였으니 네 이름을 회상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전국의 교회들이 설립되고 부흥을 바라지만 1년에 3천 5백여 교회와 문을 닫는다고 한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많은 개척교회들의 한결같은 소망은 교회 부흥이다. 나 역시 이런 간절한 열망으로 이제 새물결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가 보여준 전도의 방법을 잘 습득하여 두려움 없이 나가 전도의 열매를 거두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유자 목사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5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신이 내린 바다 천사의 섬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물 옥금수(玉錦水)

옥금수의 효능

천해의 청정바다인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소금물로 만든 옥금수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무기질과 인체에 이로운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변을 잘 통하게 해주는 성질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산성화된 몸의 균형을 맞춰주며, 좋은 소금을 잘 먹으면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란 말의 금은 작은 금과 같이 귀한 물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금물로 가글과 양치를 하면 잇몸의 염증을 가라 앉히고 구강이 건강해지며 세균으로 가득한 혀와 입 안의 위생 및 장을 이롭게 합니다.

사용법 및 효능

*소금물 1/4컵을 따라 칫솔에 문혀가며 치아에 소금물이 골고루 묻혀지도록 골고루 닦아 줍니다.
*이를 반복하며 최소 5회 이상 치아를 골고루 닦아주면 치아 표면 미백과 함께 잇몸 질환까지도 사라지는 광범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치아를 닦은 후 가글하실 때는 입 안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여러번 반복해 주시면 성대보호, 감기에 방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양치의 주요 효능

1. 충치 예방 2. 풍치 예방 3. 잇몸 질환 4. 혀 살균 5. 편도 보호 6. 감기 예방 7. 헛 기침 예방(소금물 양치, 가글의 효능)

옥금수(소금물) 홍보 옹호 활동을 희망하시는 교회와 성도님께서는 500ml 20pet-30pet 단위로 보내 드립니다. 500ml 20개 들이와 500ml 30개 들이 두 종류가 있으며 500ml 1pet 당 1,000원입니다. 수령하시는 교회 또는 성도님들께서는 주소, 성함, 연락처를 문자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보기간 동안(2017년 9월 1일-2017년 10월 31일)은 30% 특별 할인해 드립니다.

옥금수(소금물) 판매점을 모집합니다

개척교회(힘드신 교회)에 전도용으로 보내드립니다. 간수 잘 빠진 천일염 20,000원에 판매합니다.

11월 1일부터는 20개들이 20,000원 30개들이 30,000원

상담 문의 **010-3000-7602**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57-991640(김옥태)

경기·경기중앙지방회 체육대회 ‘사랑으로 하나’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자’ 라는 주제로 송추에서 열려

경기지방회(회장 최은규 목사)와 경기중앙지방회(회장 유석구 목사) 회원들은 지난 10월 23일 (월) 오전 10시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송추 천연잔디구장에서 제2회 친선체육대회를 갖고 형제가 주님 사랑 안에서 동거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쑥한 사명을 더욱 충실히 감당하는 사역자들이 될 것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른 높은 가을 하늘을 배경으로 양지방회 회원들은 송추 천연잔디구장에 모여 파이팅을 다짐하고 부족한 상대에게는 격려를, 뛰어난 기량의 상대에게는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깊어가는 가을을 온몸으로 느끼고 체육대회를 통해 사랑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경기지방회와 경기중앙지방회는 경기북 동부, 서부 지역을 망라하는 넓은 지역임에도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항상 은혜로운 양 지방회는 체육대회에 앞서 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경기중앙지방회장 유석구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경기중앙지방회 증경회장 이은승 목사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교단 부총회장 임웅재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임 목사는 사 40:27-31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무엇으로 힘을 얻을꼬?’ 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는 말씀대로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힘을



연어서 오늘처럼 가을 소풍 같은 목회, 가을 소풍 같은 인생을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이어 경기지방회장 최은규 목사의 광고, 교단 직전총회장 조남영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곧바로 경기규칙에 따라 조편성을 마치고 피구를 시작으로 하루일정의 체육대회가 시작되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자’라는 주제 아래 시작된 체육대회는 청정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자연 속의 천연잔디구장에서 혼합피구, 단체줄넘기, 공튀기기, 대형공 릴레이, 족구, 남녀혼합 축구, 신발양궁, 훌라후프 통과, 오리발 릴레이, 2인 3각, 계주(릴레이 달리기) 등 다양한 경기를 즐기며 사랑 나눔의 시간을 보냈다.

특히 이번 체육대회 프로그램은 운동을 잘하는 분들만의 행사가 아니라 누구든 함께 할 수 있

는 종목으로 결집해 회원 모두 한 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었다. 4개 조로 나누어 진행된 대회에서 그린티미 종합우승을 차지해 푸짐한 상품을 받았으며 우승팀 외 3개 팀도 다양한 상품이 전달되었다.

맑은 공기, 청정자연에서 함께한 점심식사는 산정리순복음교회(담임 임웅재 목사)에서 1백여 명의 회원들에게 풍성한 뷔페 식사를 제공했으며 이날 저녁 식사는 송추 가마골 식당에서 갈비탕으로 순복음선한목자교회(담임 최은규 목사) 성도들이 대접했다.

경기지방회와 경기중앙지방회 양지방회에서는 푸짐한 상품과 기념품 등을 준비하여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섬김의 시간이 되었다.

이날 체육대회는 증경회장 임하석 목사의 폐회기도로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었다.



체육대회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를 드리는 회원들



행운권 추첨에서 최고상을 받은 오인균 목사는 이날 대회를 위해 수고한 체육부장 조광현 목사에게 상품을 양보했다.



‘경기지방회·경기중앙지방회’ 우리 사랑으로 하나됐어요!

종교인 과세 제대로 준비되었나?

정부의 의지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종교인과세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제 2개월 남짓 남았다. 그렇다면, 정부 수립 이후 처음 시행되는 이 제도를 위하여 정부는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대다수의 종교인들은 영문도모른체 ‘범람자’의 굴레를 쓰게 될지도 모른다. 이를 위하여 정부와 종교계는 충분한 상의와 협력관계를 이뤄가야 하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답답증만 더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지난 9월에 정부가 각 종교계에 보낸 ‘세무과세기준안’에 보면 ‘종교인 과세’ 성격이 아니라 ‘종교 과세’의 성격을 띠고 있어 반발만 가중시키고 있다. 그 기준에 따르면, 기독교의 목회자들에게 생활비 외에 약 20여 가지 항목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비과세나 제외). 그러나 2015년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만 해도, 목회자의 ‘생활비’(월급)에 대한 것만 적용 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현 정부가 졸속으로 세부안을 만들어 명목상은 ‘종교인 과세’로 하고, 실제로는 ‘종교 과세’에 병징(倂征)을 두어, 법으로 종교를 다스리려 한다는 소문에 부게가 실리는 듯하여 매우 우려된다. 정부가 종교인에게 과세를 하려는 것은 ‘조세 정의’와 ‘국민개세주의’를 근거로 한다. 그러나 우리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에서 정하고 있는 종교 자유의 범위는 종교 조직의 설립권, 운영권, 인사

권, 재정권에 이르기까지를 ‘종교영역’으로 볼 때, 종교 내부에 대하여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계는 백년 양보하여 정부의 방침에 협조하여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을 반대하지 않으며, 또 평소에도 국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자신들의 삶을 희생하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매진해 왔음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이런 중대한 사안을 실행해 감에 있어 종교계와 긴밀한 대화와 설명이 부족하고, 매우 졸속적으로 예정된 날짜만을 고집하여 밀어붙이려는 태도는 그 이후에 벌어질 혼란과 불신을 예단하지 못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9월 중순까지만 해도 정부 책임자와 종교계 지도자가 만난 자리에서 “백지상태로 종교계 의견을 청취하겠다” “교회에 대한 세무 사찰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을 해 왔었다. 그런데 실무적인 내용을 반영하고 보완하기보다는 먼저 언론에서 보도케 하므로 언론 플레이로 ‘종교인 과세’ 실행에 대한 의지만을 표출하고, 무리수가 따르지 않도록 조처하는 태에는 소홀하고 있다는 불만을 사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 묻는다. 지금까지 제대로 된 (매뉴얼)이 나왔는가? <과세기준안>이 나왔는가? <시행령>에 대한 보완이 제대로 되었는가? 종교계의 의견을 제대로 경청했는가? 지금으로서는 과세를 하려는 정부도, 남세 대상

자인 종교계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되었다고 본다. 그런 가운데 강행하면 정부로서는 실정(失政)이 될 것이고, 종교계로서는 상당한 오해를 받음과 동시에 정부에 대한 부정적 대응이 강해질 공산이 크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이 과세법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갈 의지가 정말로 있다면 그 전에 먼저, 종교인 소득세에 대한 매뉴얼, 과세 기준, 시행령에 문제가 없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정하여 지난 8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등 22명이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이를 유예하여 제반 문제가 없을 때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그리고 이를 유예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정부가 새로운 법률을 시행하면서 종교를 탄압하려는 목적을 가지면 안 된다. 현재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통하여 예상하고 있는 세수(稅收)는 100억 원 정도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세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대로 준비 없이 강행하면 종교계에 모욕을 주게 되고, 사회적 불만을 일으켜 상당한 위험부담을 지초하는 것이 된다. 혹사(酷死)로 ‘종교인 과세’의 논란 속에 가장 피해가 크게 될 기독교를 겨냥하려 한다면 그에 따른 반발은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급할수록 침착해야 한다. 정부는 이 법률 시행에 대한 세밀한 점검, 그리고 종교계와의 긴밀한 대화와 소통은 기본이고, 현재 발의된 법률안이 11월 국회에서 다뤄져 그 결과에 따라 유연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 한국교회언론회

특별기고

김항주 박사 // 미 Kernel University 조직신학 교수 및 학장, 미 Life Christian University 조직신학 교수 및 학장, 대한신학대 학원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로마 가톨릭과 NCCK의 직제 통합이 부당한 이유 <1>

16세기 종교개혁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종교개혁의 3대 교리에서 그 근원을 찾아보면 쉽게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이 3대 교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집약된다. 1.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주장하는 행위주의와 반대된다. 구원받기 위해 어떠한 율법에 의한 행위라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성경의 권위이다.** 이는 교황의 권위가 성경과 동일하거나 성경위에 있지 못하다는 뜻이다. 즉 교황은 인간이므로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고 교회 앞에 무릎의 권위를 가질 수 없다. 3. **만인 제사직이다.** 이는 성도가 자신의 죄를 직접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게 된다. 신부를 통해 죄를 용서함 받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위에 요약된 3대 교리에 비추어 보면 로마 가톨릭교회가 타락한 결과는 참담할 정도의 수준이었다. 행위를 주장한 나머지 속죄권을 팔아 엄청난 돈을 모았고, 성경을 뒤로 돌리고 교황에게 복종을 요구하여 오랫동안 정치적으로 세계를 지배했으며 교회의 이름으로 종교재판을 통해 수천만의 인명

을 죽였으며, 재산을 탈취하였으며, 그리고 신부를 통해 고해성사를 하게 함으로 성도들을 굴복시켜 신부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게 되는 범죄를 자행하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 가톨릭교회와 한국 NCCK가 직제 연합 운동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배도행위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성경대로 3대 교리가 품고 있는 교리를 로마 가톨릭 공의회와 세부 조항에 따라 로마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잘못된 비성경적 진상을 밝히내고자 한다. 1.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롬 1:16-17, 롬 3:28, 갈 3:26, 엡 2:8-9, 딤후 3:5). 는 주제에 반하여 로마 가톨릭교회는 다음과 같은 교리들을 주장하는 데 대한 문제와 해답을 정리하려고 한다. 1) 가톨릭교회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선행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로마교 교회헌장 제 14항 제 1편). 이 문제는 세례를 비롯하여 온갖 성사들과 기타 많은 선을 행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율법을 선용하는 선한 행위를 하는 일에 있어 무율법주의가 아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율법을 선용함으로 1) 성도의 죄를

깨닫게 하며 2) 성도생활의 기준이 되며 3) 신앙생활뿐 아니라 모든 사회생활에 이르기까지 질서를 유지하게 한다(롬 3:31, 갈 3:24, 딤후 1:8, 약 2:14, 26). 2) 가톨릭교회는 성례가 구원받는데 필요조건이라고 주장한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7가지 성례를 주장하는데 세례(Baptism), 견진례(Confirmation), 성체성사(성찬, Eucharist), 고해성사(Penance), 병자성사(Anointing of the Sick), 신품성사(Holy Orders), 혼인성사(Matrimony)들이 있다(트렌트 공의회 DS 1604 #1113). 이는 성례에 참여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분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성례참여자가 구원을 실행하는 의식으로 말한다. 의식 율법을 통해 구원받을 수 없을뿐더러 성경은 의식의 폐기 율례를 강조한다(행 10:9-16, 갈 2:14-16, 골 2:16-16). 우리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뿐이다. 이유는 3가지이다. 첫째, 신구약의 통일성. 둘째, 예수님이 제정해 주신 예식. 셋째, 사도들의 전승. 위의 3가지만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다. 가톨릭교회의 7가지 성례는 비성경적이다. - 다음호에 계속

사설

종교개혁 5백 주년 기념주일에 붙인다

올해 10월 29일은 종교개혁 5백 주년 기념주일이다. 참으로 감격적인 주일이다. 1517년 10월 31 말틴 루터가 저 독일 비텐베르크성의 성당 성문에 써 붙인 로마 천주교의 면죄부 비판 95개 조항 반박문이 도화선이 되어 일어난 개신교의 출발점을 기념하는 주일이다. 그로부터 5백 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이니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믿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확신해야 하겠다. 루터는 그의 모든 글에서 천주교 교황이라도 성경의 권위 아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당시나 지금이나 천주교는 성경해석의 최종적인 권위가 교황에게 있다고 신봉한다. 교황 무오설, 마리아 무오설을 주장하고 마리아의 우상을 숭배한다. 루터는 이 근본적인 천주교의 교리를 타파하고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을 통한 구원 즉, 이신칭의(以信稱義)라는 복음을 바로 선포하고자 하였다. 당시 결국 그는 로마 교황청에 소환되어 회항에 처할 위기에 처했다. 교황은 이미 루터에게 1520년 1월 파문을 선언하였었다. 그 첫 종교 재판은 당시 신성로마 제국 황제 찰스 5세가 소집한 오늘의 독일 보름스 국회의 재판이었다. 이 자리에 교황의 사절로 파견되어 루터를 변호한 사람은 알라민더리는 대 사제였다. 보름스 재판 결과는 루터의 목숨이 달린 자리였다. 교황청 측사는 이 자리에서 물었다. 로마 교황청을 거부하는 모든 주장과 저작물의 철회와 사죄를 요구하였다. “예, 아니요”로 답하라고 강박하자 루터는 목숨을 건 한바디를 단호히 대답하였다. 천주교 사제였고 카톨릭 신학 교수였던 루터는 이미 확신에 가득 찬 종교 개혁자였다. “아니요 나는 성경과 양심에 거역할 수 없습니다”라고 선언했다. 이때 루터가 말한 것으로 알려진 “내가 여기 섰나이다. 나는 달리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며, 나를 도우소서, 아멘”(Hier stehe ich, Ich kann nicht anders, Gott helfe mir, Amen). 이 한바디는 오늘도 참된 신앙고백으로 전해 온다. 그 당시 이 자리에 모여들었던 수많은 독일인들은 루터 만세를 외쳤다고 한다. 이 장면은 종교개혁 5백 주년을 맞아 국내에서 재개봉된 영화 루터(2003년 작)에 잘 묘사되어 있기도 하다. 2017년 현재 전 세계 인구 75억2천만 가운데 기독교 인구 31%, 이슬람교 23%, 무교 16%, 힌두교 15%

등으로 집계되고 있다. 기독교 가운데 천주교가 50%, 개신교 37%, 그리스 정교회 12%(유엔 통계)로 되어 있다. 여전히 로마 천주교는 위세를 떨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현재 인구 4천9백만 가운데 종교 인구 2천15만5만, 기독교 968만, 불교 762만, 천주교 398만 명 등으로 조사되어 있다.(통계청). 그러나 근래 천주교 신자가 급속히 늘어 5백만을 돌파했다고 천주교 측은 말한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 성도들은 확실히 알고 믿어야 한다. 로마 천주교는 성경을 변조한 종교다. 십계명의 제 2계명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를 삭제하였다. 그리고 마리아 무오설과 그 우상 숭배, 그리스도보다 마리아 우위 설을 신봉한다. 모든 신자는 사제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 사제가 아닌 신자는 예수를 믿어도 바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중간 단계인 ‘연옥’에 가서 고통받아야 하고, 산 자들의 ‘공덕’ 여부에 따라 그곳을 벗어날 수 있다는 교리를 가르친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만인 제사장” 등의 성경에 입각한 종교개혁의 복음 선포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딤후3:14-16),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롬 10:13),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롬 1:17)-했던만 저들은 이보다 교황과 천주교의 전통을 더 앞세우고 믿음에 더하여 7성례의 완수라는 행위 구원을 가르친다. 천주교에 과연 구원이 있는가? 천주교의 인간론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부정한다. 그들은 말하길 창조주 하나님의 원의(原義:original righteousness)가 인간에게 살아 있어 아담의 타락 후에도 인간의 영혼에는 지력으로 구원으로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이 남아 있다고 가르친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성경말씀은 자의적 해석 아래 무시된다. 우리 모두 뜻깊은 종교개혁 5백 주년 기념주일에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앞에 깊이 회개 자복하고 감사하며 묵상하고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을 기리며, 믿음을 바로 세우는 은혜를 누리자!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고문 : 정책위원장 조몽목 목사
- 발행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영평로 22 다빌 5
-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경기남지방회

다머섹교회 ACADEMY



이원정 목사

다머섹순복음교회 담임

요한복음 1장 2-3절

만물의 원인은 곧 말씀입니다. 롬1:20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으로 만물을 통해 분명히 보여 알게 되고, 형체와 본질이 나옵니다. 곧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들어 있습니다. 화가가 그림 한 작품을 그릴 때, 그 속에는 화가의 마음과 정신이 들어있어 그 그림의 작가가 누구인지가 드러나는 것 같이,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신성과 인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부분적으로 만물을 통해 나타납니다. 만물은 부분적으로 보여주지만 하나님의 완결판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 받은 사람을 소우주라고도 하지만 사람은 만물보다 큼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만물 안에도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보여주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전체를 보여주며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부분은 전체를 다스리지 못하기에 전체가 부분을 다스리고 통제합니다. 곧 사람이 만물의 영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돌산에 큰 공장이 돌아갈 때도 중앙통제부가 관리하듯 만물도 효과적으로 지배되고 다스려지려면 통제부가 필요한 것처럼 사람이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다스려 일지하여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효과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 대신 자연을 아름답게 가꾸고 정복하고 다스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인간은 시행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곧 말씀입니다. 가전제품은 전기로 돌아갑니다. 전기가 없으면 가전제품은 무용지물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만물이 충만한 것은 말씀이 원리입니다. 인격과 신앙, 성자 하나님입니다. 이 원리를 찾아내고자 하는 것이 철학이고, 학문은 진리를 추구합니다. 말씀이 만물 안에 있습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에 논리적 체계를 이루려면 철학이 필요하고 원리, 말씀이 있어 보이는 세계를 효과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모든 학문은 말씀의 진리를 추구합니다. 그 분을 통하지 않고는 원리를 통하지 않고는 세상이 존재하지 못합니다. 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은 원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벗어나면 생명은 죽습니다. 말씀이 역사하면 생명이 나오고 만물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1절에 그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신의 성품, 본질이 곧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나온 생명의 본질은,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 우리가 가진 생명, 거듭난 생명, 그리스도의 장성한 인격과 분량입니다. 끊임없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뱀진1:23씩을 씹어 씹지 않을 씹어 있어 씹지 않을 씹는 하나님 말씀이고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며, 씹는 씹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씨로 사람의 생각, 조상의 전통, 유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꾸지 않으면 씹을 씹으, 멸망입니다. 수가성 여인의 우물은 조상아담이 주는 물로 먹어도 목마른 전통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주는 물은 항상 살아있는 물로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준다 하였습니다. 요1:1이 생명은 사람의 빛입니다. 왜 빛일까요? 모든 생명은 빛을 지향합니다. 해를 향해 가지를 뻗고 줄기를 뻗습니다. 생명의 본질은 말씀입니다. 말씀의 빛에서 생명이 나오고 자연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창 1:1 “공허하고 혼돈하니 빛이 있으라. 어두움이 물러나니 밝아지고 지석이 되니 아침이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목회자 세미나

- 시간 : 매 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 낮 12시 30분
- 대상 : 광주를 중심으로 성남, 용인, 곤지암 수원, 하남, 이천, 여주 등에 교회를 두고 있는 개척교회, 미지립 교회의 목회자
- 강사 : 강사는 목회자들에게 존경받으며 귀감이 되며 덕망을 갖춘 본 교단 목회자 또는 교수 중에서 선임하되 점차 초교파적으로 확대한다.
- 홍보 : 목양신문을 통해 정기적으로 한다.
- 강시료는 무급으로 하되 간단한 중식은 교회에서 제공한다.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현산로 130-40 다머섹순복음교회(담임 이원정 목사)
- 연락처 : 031-765-2791

미국 트럼프 대통령 국민방한 환영

Welcome U.S. President Trump's State Visit to
Korea as National Guest of Honor



자유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을 사랑하며 자유대한민국의 방문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유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과 자유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공산주의를 싫어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으로 북한의 핵무기가 사라지고 자유대한민국에 공산주의자들이 발붙이지 못하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17년 11월 7일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THE COUNCIL OF CHRISTIAN DENOMINATIONS IN KOREA